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모태펀드 1조원 출자, 1.9조원 벤처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회복 가속화

-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 시행 ('25.1.24)
-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원 출자, 2월 중 조성지역 선정 예정
- 구주 매입 주목적 투자 한시 인정('25~'26, 최대 20%)으로 중간회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1조원을 출자하여 1.9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 '25년 모태펀드 출자예산 1조원 전액을 공고한 것으로, 정부가 조기에 마중물을 공급하여 벤처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모태펀드 출자방향 】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출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 '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주요 출자분야 >

단위 : 억원

출자분야	예산	조성목표	출자분야	예산	조성목표
글로벌	1,800	10,000	기업승계 M&A	300	750
지방시대	2,000	3,500	루키리그	1,000	1,667
창업초기	1,000	1,667	청년창업	400	667
라이콘	150	250	여성기업	100	167
바이오	300	500	재도약	300	500

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억원을 출자하여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국내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글로벌펀드 운용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와 지자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공동으로 3년간(’25~’27) 1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며, 2월 중 ’25년 조성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이 보다 과감하게 지방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③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하여 창업초기 분야에 전년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 창업초기 분야 출자규모(억원): (’24) 800 → (’25) 1,000 (+200, +25%)

④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4년 신설한 ‘라이콘 펀드’도 250억원 규모로 지속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⑤ 최근 투자 어려움이 논의되어온 바이오 분야 투자 정책도 강화된다. 임상 이전 단계의 초기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하여 500억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⑥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를 750억원 이상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CEO 비중이 전체의 1/3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3자 M&A 등 원활한 기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 중소기업 CEO 60세 이상 비중(중소 실태조사) : (’12) 14.1% → (’22) 33.5%

⑦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 및 안착을 지원하는 ‘루키 리그*’에 출자예산의 10%인 1,000억원을 안정적으로 출자한다.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 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 업력 5년 이내, 자산운용규모 1,000억원 미만 벤처캐피탈 전용 트랙

한편, 모태펀드가 대기업, 금융권, 연기금·공제회 등과 공동 출자하여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및 ‘LP 첫걸음 펀드’는 24일부터 출자자 참여 의향 조사에 나섰으며, 출자자 참여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모태펀드 출자사업 제도개선 방향 】

아울러,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2년간(’25~’26)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초기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용사는 적극 우대한다.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선정**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전용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의 **지방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지방 펀드는 지방에 본점이 소재하고, 지방 투자실적이 풍부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하여 **지방 특화 운용사**를 육성한다.

모태펀드의 인내자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4년 이내인 투자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바이오 등 일부 분야는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는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도전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였다.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관리보수 지급체제도 다양화*하여 펀드 운용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현행) 펀드 운용 4년차 이후에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지급
(개선) 사전에 연차별로 관리보수 지급율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오영주 장관은 “CES 2025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12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라면서, “이러한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4-7712)
			주무관	진명철 (044-204-7716)
			전문위원	박철순 (044-204-7618)

